



##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北 ICBM에 文대통령 ‘강경’ 급선회

북한을 향해 대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타진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북 강경’으로 급선회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미국 본토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는 기존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계임 체인저’라는 게 우리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만에 감행된 것으로 한·미 양국을 직접 겨냥해 메시지를 주려는 도발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 한·미 양국으로서는 앞으로 한층 더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며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응의 강도와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특히 미국은 ▲연합방위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아너셔티브’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막역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ICBM 성공’ 선언은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새로운 공동 접근 방안을 정면 거부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

쪽 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는 기준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계임 체인저’라는 게 우리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만에 감행된 것으로 한·미 양국을 직접 겨냥해 메시지를 주려는 도발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 한·미 양국으로서는 앞으로 한층 더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며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응의 강도와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특히 미국은 ▲연합방위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아너셔티브’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막역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ICBM 성공’ 선언은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새로운 공동 접근 방안을 정면 거부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

쪽 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는 기준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계임 체인저’라는 게 우리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만에 감행된 것으로 한·미 양국을 직접 겨냥해 메시지를 주려는 도발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 한·미 양국으로서는 앞으로 한층 더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며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응의 강도와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특히 미국은 ▲연합방위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아너셔티브’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막역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ICBM 성공’ 선언은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새로운 공동 접근 방안을 정면 거부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

쪽 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는 기준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계임 체인저’라는 게 우리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만에 감행된 것으로 한·미 양국을 직접 겨냥해 메시지를 주려는 도발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 한·미 양국으로서는 앞으로 한층 더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후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응의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공동전선을 편 셈이다.

특히 미국은 ▲연합방위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아너셔티브’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막역에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ICBM 성공’ 선언은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새로운 공동 접근 방안을 정면 거부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

## 北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 국방부 “北 미사일 ICBM 급 신형 미사일”

북한이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열연팀 특성과 구조안정성 기술을 시험했다고 5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4 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지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며,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첨두(탄두부의 열연팀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재진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사된 로켓은 예상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비행해 거리 933km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로켓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발사시 로켓의 발사대리 탈특성과 능동구간에서 계단별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의 기술적특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45도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1계단 대출력 발동기(엔진)의 시동 및 차단 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제 비행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과 작업 특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날 발사한 ‘화성-14’와 관련해 “국방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은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짧은 기간에 우리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화성-14” 시험발사 참관에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택겸 전략군 사령관,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전일호, 유진조용원 당 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 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잡정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군은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천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장세규 기자

## 中, 北ICBM 발사성공 발표에 “유엔결의 위반했다” 비난

## 정부 소식통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찰(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데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경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의했고 현재 상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황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유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유엔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및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또 다시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석수 기자

## 日, ‘北ICBM 발사 성공’ 발표에 NSC 재소집…언론 긴급보도

북한이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재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도 북한의 발표를 긴급 속보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된 뒤 NSC를 소집한 뒤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NSC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강한 결속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를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한이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발표하자 재차 NSC를 소집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의 발표 이후 긴급 속보를 통해 “북한이 특별중대보도를

발표하고 IC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도 속보를 통해 북한의 발사를 전하며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며 “핵무기와 함께 ICBM을 보유해서 당당한 핵강국이 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전했다.

하석수 기자



## [이슬람 전문칼럼] 격변하는 중동 이슬람권의 정세

2017년 6월 7일, 중동에서 테러의 무篷차대로 자부하던 이란에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수도 중심에 있는 의회 의사당과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부라 불리는 선교훈련원 이만석 원장이 이맘 호메이니의 묘역이 피로 얼룩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테러 도심의 의사당에 범인 4명이 침입하여 경비원을 사살하고 종기를 난사했다. 약 30분 뒤 테러 남쪽으로 20Km쯤 떨어진 이맘 호메이니 묘지에서 또 다른 무장 괴한들의 총격과 자폭테러가 일어났다. 두 사건으로 총 17명이 죽고 40~5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란 당국이 보도했다.

◆이란의 상징에서 일어난 테러 이번 테러는 이란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개의 장소가 목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커졌다. 의회 건물은 이란의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다. 비록 이란에서는 의회의 결정 보다 종교지도자의 지침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갖는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맘 호메이니의 묘지는 이란 국민들에게 성지 중의 성지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란에서 이맘 호메이니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다. 2500년간 이어왔던 왕정국가를 뒤엎어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그이다. 이란의 모든 정부기관, 학교, 단체, 공공건물 및 개인 사무실까지 그의 사진이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 이란에서 사용하는 7 가지 종류의 지폐에는 모두 이맘 호메이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란의 애국가는 전제가 이맘 호메이니와 그의 이슬람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란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이맘 호메이니가 성공시킨 이슬람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이란의 존재 목적으로 공언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의 유물정치를 한다면, 이란은 이맘 호메이니의 유물정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는 이란을 공격으로 명명되었고, 이란을 방문하는 모든



한장총한기총 이슬람  
부리 선교훈련원 이만석 원장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려 테헤란 도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길 오른편에 황금빛 치관한 이맘 호메이니의 묘지를 보게 된다. 초중고 학생들뿐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과 단체들까지 전국에서 앞 다투어 이곳을 참배한다. 시신을 안장한 곳에는 참배객들이 한금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겪히는 막대한 자금으로 묘지 주변에 이맘 호메이니 연구소, 이맘 호메이니 신학교를 만들었다. 테헤란에서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이맘 호메이니 지하철역도 계획 중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중동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을 자랑해 오던 이란의 자존심을 짓밟고 충격과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다.

### ◆이란 정부의 대처

그런데 이란 정부는 벌끈하는 대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는 사건 종료 후 즉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적들이 와서 폭죽놀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오히려 이란 국민들의 결속을 다지며 충성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때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단운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까.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ISO 사건이 발생한 후 IS(Islamic State:이슬람국가)는 즉시 금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IS는 살라피즘 혹은 와하비즘이라는 원리주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이다. IS는 금년 3월,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을 정복하여 칼리프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란을 카파르(불신자)로 선언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란을 정복하고 시아파를 박멸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IS는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지금 IS(이슬람국가)는 국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채 점령지를 계속 빼앗기면서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IS와의 전쟁 혹은 테러와의 전쟁에 온 세계가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밀리다가는 며지않아 IS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구도를 “세계와 IS와의 전쟁”으로 “이란(시아파)과 IS와의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첫

로 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란이 IS에 반격을 가한다면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공격이 된다. 그것은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막강한 정부기관과 단체들까지 전국에서 앞 다투어 이곳을 참배한다. 시신을 안장한 곳에

는 참배객들이 한금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겪히는 막대한 자금으로 묘지 주변에 이맘 호메이니 연구소, 이맘 호메이니 신학교를 만들었다. 테헤란에서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이맘 호메이니 지하철역도 계획 중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중동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을 자랑해 오던 이란의 자존심을 짓밟고 충격과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다.

◆이란의 해방과 사우디의 불안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동시에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직원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했던 것을 계기로 미국과 오랫동안 원수지간이 되었다. 미국은 항상 이란의 적적인 사우디 편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의 큰 시장인 이란에게 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란은 이맘 호메이니의 유훈, 즉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자침에 둑여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오랜 국제적 경제봉쇄 탓에 이란의 경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폭락했다.

결국 온건파를 자처한 로하니 대통령은 2015년 7월 핵무기 개발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핵 사찰단을 이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의 경제제재를 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질식 직전의 이란 경제는 숨통이 트이고, 해외의 큰손들이 군침을 삼키며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아파 맹주로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했던 이란이 서방 국가와 해방 모드에 접어들자, 사우디는 자신들의 위상이 훼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는 이슬람권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공통의 적을 향한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

로하니 대통령의 서방과의 화해무드에 대해 이란인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리주의적인 이란의 성직자들은 핵 협상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숨겨둔 미사일 등을 공개함으로 자신들이 은밀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은 나쁜 협상’이라며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첫

해의 순방지로 사우디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우디로서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반기듯 트럼프를 환영하였고, 1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기의 구입과 약 300억 달러의 경제 거래를 합의했다. 이를 놓고 공통의 적 ‘이란’을 향한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 미국의 의중을 확인한 사우디는 이란 고립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란과 친교를 다지며 중동의 종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카타르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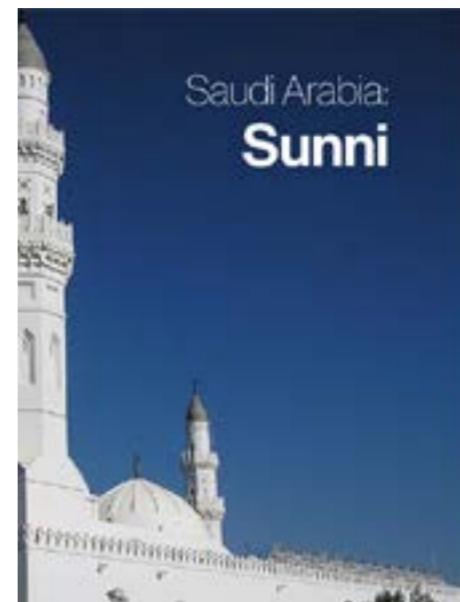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 아랍국들

얼마 전 카타르는 알 자자라 방송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이란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방송했다. 이것을 빌미로 사우디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등 아랍국들과 연대하여 카타르와의 외교단절을 선언하였고, 카타르를 테러지원국이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아랍권 절대 군주들의 조법적 횾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알 자자라 방송이 없었다면 아랍의 민주화 운동은 성공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다.

외교적으로도 카타르는 자유 개방정책을 펴 왔다. 수니파 국가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시아파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보았다. 또한 아랍 진영에서 테러단체로 지목된 무슬림 형제단과 하마스를 지원하는가 하면 그 잔당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국가가 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과도 친교를 맺어 무역대표부 설립을 허락해 주었다. 안보를 위해 강력한 친미 정책을 택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미 공군기지가 현지의 반미 감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재빠르게 공군 및 해군 기지를 받아들여 미군의 군사용선을 만들기도 했다.

◆중동 정세의 전망

일부 매스컴은 외신을 인용하여 테러 사건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처럼 전단하기도 한다. 이란은 한 때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IS의 테러에 대해 즉시 보복 공격을 감행함으로 수니파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우디 역시 이란과 전면전을 치를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왼쪽)와 시아파의 대표국 이란. 테스트튜브뉴스

큰 충돌에 대한 염려는 기우로 보인다. 테러 며칠 후에 이란은 시리아의 IS주둔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테헤란 대리에 대한 보복이라고 선언하고, 누구든 이란을 건드리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은 그 정도 선에서 경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기도 제목

혹자는 이번 중동의 격변 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우디가 원리주의 이슬람 수출의 종본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우디에 팔아넘긴 엄청난 무기들이 자신들의 안방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마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넘겨준 무기들이 9.11테러가 되어 돌아온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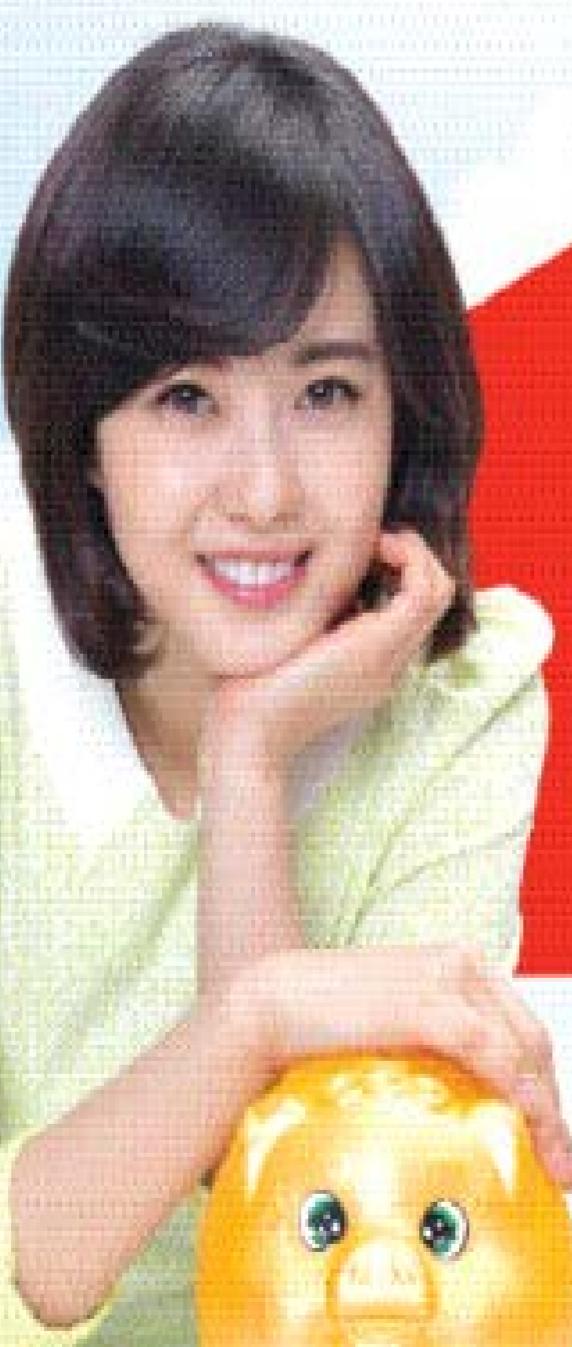
우리는 중동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뿌리 깊은 원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카타르나 이란이나 사우디 역시 복수와 폭력을 정당화 하는 이슬람의 악한 영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종교와 분노를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갖고온 글임을 밝힙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 [창조신학칼럼] 창조,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창조 교리는 성경에서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종교학 진술이므로 창조와 구속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들은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공동 선언인 니체아 신경과 사도 신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창조 교리는 발전하지 않고 구속 교리만 발전해 온 감이 있다. 그것은 20 세기 들어 구약신학과 교의신학 양편에서 영향력 있는 두 신학자인 구약신학자 폰 라드(Gerhard von Rad, 1901-1971)와 교의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주도한 구속 신학의 변형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볼 때 창조 세상(자연)은 늘 구속은 종 앞에 무기력하거나 구속에 종속될 뿐이었다. 이들이 우려했던 것은 창조신학이 구속신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노파심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창조와 생명이 전제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는 구속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창조교리를 구속교리에 종속 시키려는 폰 라드에 반대한 구약학자 슈미트(Hans Heinrich Schmid)가 말하듯 “창조교리는 주변적인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모든 신학은 특별히 창조를 말하지 않아도 창조신학”이다. 사실 창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주의 시작이 창조요 인간의 시작도 창조요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 곧 재창조의 장소이다. 창조를 떠나서는 구속은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신학적 전제를 <복음을 위한 창조신학>이라고 표현

하려 한다. 설교자들은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의 이 같은 관계를 바르게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성경적, 복음적 창조 신앙을 설교해야 한다.

창조를 믿는 종교는 많다. 설교자는 이 신론(理神論), 만유내재신론(萬有內在神論), 유출설(流出說), 범신론(汎神論), 영지주의 창조론 등이 왜 바르지 못한 기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바른 복음적, 성경적 창조 신앙(기독교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창세기 전반부(1-12장)에 계시되어 있는 최소한 다음의 21가지 기원에 대해 명료하게 설교해야 한다. 창세기 1장은 먼저 우주와 생명의 근본(기독교 세계관의 창조)과 관련하여 (1) 우주의 근본(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기원), (2) 빛의 기원, (3) 물의 기원, (4) 천체(해, 달, 별)의 기원, (5) 식물의 기원, (6) 동물(새, 물고기, 육상동물)의 기원을 설명한다. 둘째, 인류(기독교 세계관의 타락)과 관련하여 (7) 안식의 기원, (8) 인류의 기원, (9) 죄의 기원, (10) 노동의 기원, (11) 죽음의 기원, (12) 남녀의 기원, (13) 결혼의 기원, (14) 가정의 기원, (15) 살인의 기원, (16) 문명의 기원, (17) 각 종족의 기원, (18) 국가의 기원, (19) 언어의 기원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와 관련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 가운데 겸손하게 설교해야 한다(벧전 3:15-16).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대해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창조 신앙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공격적으로나 논쟁하듯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특별은 총(구속)과 자연은 총(과학)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작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도 언젠가 거울을 마주 보듯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Magnalia Dei)을 담대히 선포하라!

님은 세상 창조를 기뻐하셨고 인간 창조를 무척 기뻐하셨다. (4)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3:8-24), 6:5-8= 대홍수 심판 경고, 11:1-9= 바벨탑 사건, 18: 16-19:29= 소돔과 고모라 심판) (5) 하나님은 자비 하시다 (3:21=가족 옷 입히신 사건, 4:15= 살인자 가인 보호, 6:8=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 18:32= 10인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심판 치 않으시겠다는 아브라罕과의 약속 대화). (6)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다(18:14=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 이삭의 약속, 26:12-16= 이삭에게 백배의 농사 소출의 은혜를 베푸시, 50:20= 노아를 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 등).

둘째 창조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 설교자는 창조와 구속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잘 구분해서 설교해야 한다.

창조 신앙에 담긴 초월(超越)과 내재(內在)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구원의 본질처럼 설명하려거나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외삽(外插)하여 단정 짓는 성급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창조 신앙과 구속 신앙은 기독교의 근본(본질)이다. 하지만 외계인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연대는 언제였는가? 사람의 팔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가 사람인가 등등의 경우에는 아직 성경과 신학과 과학이 모두 동원이 되어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종말의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바 아니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 인류에게 세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일부 증거들에 대해 여전히 설교해야 한다. (1)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인간과 달리 어느 것에도 의존하는 분이 아니다. (2)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I:26-2:25). (3) 하나님은

계시의 문서임을 인지하고 회중들이 더욱 기도와 성경과 신앙의 신비에 대해 도전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셋째 기원에 대한 무신론적 자연주의의 문제점을 설교해야 한다.

기원에 대한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반드시 그 종착역이 무신론적 유물론과 우연주의, 자연주의의 진화론 등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밟고 싶어 하는 설교자로 알려진 고(故)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복음주의의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복음주의는 과학에 있어 자연주의의 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끔 성경의 진술이 몇 가지 과학적 발견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언젠가 과학보다 성경의 진술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성경과 달리 과학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과학은 늘 가변적이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R. Popper, 1902-1994)가 말한 대로 과학은 반증(反證) 가능해야 과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와 관련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 가운데 겸손하게 설교해야 한다(벧전 3:15-16).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대해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창조 신앙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공격적으로나 논쟁하듯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특별은 총(구속)과 자연은 총(과학)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작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도 언젠가 거울을 마주 보듯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Magnalia Dei)을 담대히 선포하라!

## [손석봉 칼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기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지적으로라도 경외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5절에는 공회 앞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치라는 말에 의문이 일어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달이에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3절)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4절)라고 바울에게 말하자 바울이 자세를 바짝 낚주며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이어서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28절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성(靈性)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삶이라면 후자는 은사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전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존중하게 하고 온전히 지속케 합니다. 방언, 통번, 예언, 치유, 축사 등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오게 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 그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회개, 순종, 겸손, 하나님을 경외함 등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마음이 인생의 횟수를 더해감에 따라 더욱 실감납니다. 둘째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그 뿌리와 전액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존스럽고 느리고 불편하고 불규칙하기도 한 아날로그의 삶이 여전히 디지털 세상을 지탱시키는 버팀목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끝까지 존중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까지 보존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 [아침을 여는 기도] 이슬에 흠뻑 젖는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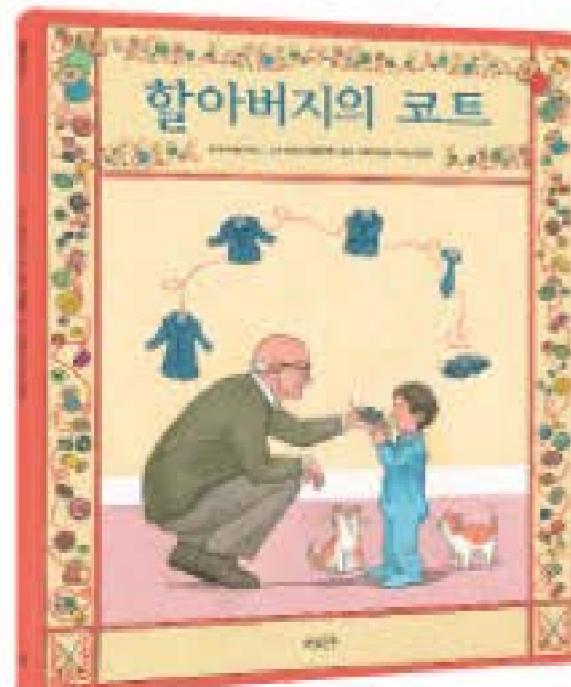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의 피난처가 되시어 저를 잡아주옵소서. 곡식이 가득하고 하늘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복된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쇠로 만든 벗장으로 성문을 채워주시어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있고 없고, 가졌고 갖지 못하였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데에 눈길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의 목표를 두어 복되다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복

을 주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복이 있습니까? 환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복의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주변이 아무리 일그러져 있어도 하늘의 복을 갖고 싶습니다. 스스로 가야 될 목표를 정하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어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복이 되어주시며 사슴처럼 날랜 다리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고만해지지 말고 멋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풍성히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나누게 하옵소서.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게 하옵소서.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불드시니” 참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민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끈 입을 치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전민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흰복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크 미호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시 문화 02-734-7055

글 김아길스워스 | 그림 바버라 데밀리 | 흰복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크 미호재